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李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사면심사위, 건의 대상 논의…12일 국무회의서 최종 명단 확정
학계·종교계 사면 요청 잇따라…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제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

활을 해 왔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이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데서 명분을 찾으면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서 중단된 상태인 데다, 형기가 매우 많이 남은 경우까지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고려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을 그룹으로부터 역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 문 전대통령 예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광주 AI 도시·전남 의대 설립…호남 발전 최선”

민주 최고위원 서삼석

민주 정치적 고향…소외 없애고
민생 회복·지방선거 승리 매진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며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 종식, 지방선거의 승리 그리고 민생을 잘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임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호남정치 복원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8·2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청래 당대표 지명에 따라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서 최고위원은 “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며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대선기간과 당대표 경선기간 행동으로 호남에 직접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린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창당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힘을 쏟아 주었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전남은 80%가 훌쩍 넘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압도적



표의 민주당은 호남을 절대 홀대하거나 호남정치를 변방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호남 정치인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 달라는 채찍질의 말로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8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며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

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한우법’ 포함 민생 5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생산비 보장 대책이 마련됐다”며 제가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안 반영된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가격안정제’를 제안해 도입됨에 따라 향후 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정부 및 당 차원의 호남 지원·발전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전남 지역 공약으로 각각 AI 국가 시범도시 및 신재생 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행정력과 재정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인구소멸위기의 도시가 많은 호남은 정부의 역점추진사업에서 소외 당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한 뒤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니 좋은 기업도 유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외받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현안사업 국비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올해 지역구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인 결과,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7일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총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되는 ‘해남 동초 학교복합시설 공도’ 사업 선정에 공을 들여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주차장을 비롯 예술, 체육시설 등 1000평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며 국비 50%가 지원된다.

또 올해 4월 ‘어란 CLEAN 국가어항 사업’에 선정에도 힘을 쏟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사업이었던 어벌도 교량사업(217억원)과 농촌공간 정비 사업(60억원)을 포함해 총 447억원짜리 대형 사업이다. 박 의원은 또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 관광 명소화’ 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켰고, 쌀값 안정화 공동지원금 44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도지역에는 신지 동고항 어촌신활력사업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도부로부터 노화도 미술전시관 사업(130억원) 예산도 배정받도록 했다. 또 보길도가 농산어촌개발사업(80억원)에 선



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금일읍 소량마을과 노하읍 석중마을이 ‘2026 농어촌 취약지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각각 23억원, 2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박 의원의 고향인 진도군에는 의신면 만길마을 농어촌 취약지 개조사업 선정으로 국비 25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조금 5일장 보수사업 예산 국비 11억원도 확보했다. 의신 초평항과 임회 동현항도 어촌신활력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국비 350억원을, 진도읍 포산리 ‘K-먹거리 민관협력사업’ 예산 123억원도 확보했다. 진도군은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2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와 지역 SOC 확충사업, 농어업 재해 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남, 완도, 진도의 국비 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문춘문에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